



# 책의 성지를 떠돈 순례객들의 지적 편력

소설 속에 등장하는 독서가들의 내면 풍경

문학작품 속에도 다양한 독서가들이 등장한다. 작가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그 작가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독서광에서 책과 책 사이를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쏘는” 독법을 터득한 독서가까지 그 모습이 다양하다. 이들이 책을 읽는 이유도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다. 이들을 통해 독서가의 여러 유형과 독서의 여러 방법을 엿볼 수 있다.

독서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들이 있다. 그들의 독서를 따라가는 일은 흥미롭다. 작가의 독서편력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직간접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작품 속의 주인공들이 읽는 책을 찾아 서점이나 헌책방을 순례하는 일에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독자가 소설 속 등장인물처럼 느껴지니 말이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치우는 난독형의 독서가 독서가의 유형에는 숙독형, 난독형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민음사)의 주인공 ‘나’는 난독형의 대표적 인물이다. ‘나’는 “책에 대한 퍽없는 갈망”으로 “무모하리만큼”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치운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책 저책 사이를” 방황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나’가 읽는 책들이 대부분 개론서라는 점인데, 결국 주인공은 “찾집 같은 데서 동년배의 감탄을 사기에는 훌륭해도” “느는 것은 갈망뿐 결국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다만 모든 것을 다 아는 바보”라고 깨닫게 된다.

박일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민음사)의 주인공 ‘나’는 스스로가 “대단한 독서광이 아니다”고 겸손해하지만, 독서광임에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서른살이 되던 해를 “존 파울스의 《프랑스 중위의 여자》와 존 업다이크의 《달려라, 토끼야》를 세번째 읽던 해로 기억”할 정도니 말이다. 이 독서광의 본격적인 책읽기는 “호기심이 많은 나이인” 열아홉에 시작되는데 그는 독서를 통해 “이제 어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그는 웬만한 이력이 붙은 독서가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준다. “이삼십권의

책을 쌓아놓고 꽃에서 꽃으로 옮겨다니듯,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독법”을 터득한 데서 알 수 있다.

대개 독서가의 탄생은 한 작가를 사모하는 데서 시작된다. 카롤린 봉그랑의 《밀줄 긋는 남자》(이세옥, 열린책들)의 주인공 콩스탕스도 마찬가지다. “밤마다 젓가슴 위에 책을 세운 채 잠드는 바람에 직각 모양의 붉은 자국이 가실 날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독서가인 콩스탕스는 한 작가를 사랑하기에 독서에 빠져들게 된 인물이다. 그는 파리의 모든 도서관을 뒤지고, 그 작가의 책이라면 갖가지 판형의 것들을 모조리 사들인다. 이것으로 모자라, 그 작가가 좋아하는 것까지 그대로 훑내낸다. 출판사를 통해 그 작가가 점심 식사하던 장소를 알아내고는 마치 “성지순례”하듯 그 식당에 찾아가 “똑같은 식탁을 주문”할 정도다.

현실이 아닌 책 속의 주인공 사이에도 기막힌 우연이란 게 작용하는가 보다. 레몽 장의 소설 《책 읽어주는 여자》(김화영, 세계사)의 주인공도 콩스탕스니 말이다. 그의 직업은 제목 그대로 ‘책 읽어주는 여자’.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에 책 읽기를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책 읽기가 직업이 된 이상 그의 책읽기는 고통스럽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고통스런 독서라는 행위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는다. 그는 책을 읽어나가면서 그 자신이 마치 한편의 책처럼 ‘도구화’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

게 되는 것이다. ‘책 읽어주는 여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주체적 책읽기’가 아니었을까?

독서를 통해 세계관 형성하는 청소년 독서가들 나이는 어리지만 최시환의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문학과지성사)의 주인공 ‘선재’도 ‘주체적 책읽기’의 한 전형이다. 그는 《허생전》을 읽고 지식인이라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깨닫는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와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 디틸러스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창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인훈의 《회색인》(문학과지성사)의 주인공 독고준은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 속으로 빠져든다. 그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읽었을까. 아마 외로워서였다. 외로워서? 아마.”라고 말한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연령에 맞지 않는 책’을 몰래 숨겨 놓고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고독한 독서가인 독고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는 에멜 졸라의 《나나》를 형이나 누나 앞에서는 읽지 않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버젓이 내놓고 읽는다. 이유는 “어머니가 책을 못 읽는 것을 알”기 때문. “죄의 기쁨 속에서도 이야기의 세계는 매력 있었다”는 그의 고백은 독서의 매력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준다. — 최갑수 기자